

다산학 35호 (2019.12) | 331~344

대만학계 『주역』 연구의 역사와 경향

박영우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목차

- 【易學史研究】
- 【期刊論文】
- 【易學文獻目錄】
- 【學位論文目錄】
- 【易學辭典類】
- 【海外易學研究】
- 【臺灣地區之易學大儒】
- 【中國大陸易學大師】
- 【易學論文集】
- 【出土文獻研究】
- 【맺는말】

이 글은 대만 주역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참고할 가치가 큰 연구 성과들을 목록학적 시각에서 그 개괄적인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체 대만의 주역학의 연구 성과들을 대략 ‘易學史研究’·‘期刊論文’·‘易學文獻目錄’·‘易學學位論文目錄’·‘易學辭典類’·‘海外易學研究’·‘台灣地區之易學大儒’·‘中國大陸地區易學大師’·‘易學論文集’·‘出土文獻易學研究’로 세분하였다. 순서대로 연구 성과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易學史研究】

일반적으로, 역학연구영역에 관한 분류는 대체로 의리학·상수학·고거학·역사학·고고인류학·훈고학·현대철학 및 과학·출토문헌 등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사계의 현주소이다. ‘역학사’에 관한 현대적인 연구는 高明 선생의 분류 방식이 가장 최초의 연구로 언급된다. 후대의 역학사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고명 선생의 연구에 기초하여 확장과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一. 高明,〈五十年來之易學〉,《中國一周》,558期,1961年.

1. 注釋派(漢唐宋明 大儒들의 易學에 주석을 단 연구들): 沈竹初,《周易易解》; 陳樹楷,《周易補注集解》; 王凱運,《周易箋》; 楊樹達,《周易古義》; 高亨,《周易古經今注》等.
2. 論述派(앞시대 학자들의 易學에 論述을 덧붙이는 연구들): 杭辛齋,《辛齋易學》(上下); 屈萬里,《先秦漢魏易例述評》; 程啟槃,《雕菰樓易義》; 吳康,《周易大綱》; 陳柱,《周易論略》等.
3. 考證派(고증학적 방법으로 주역 텍스트와 역학 이론들에 관한 검증과

재해석을 시도한 연구들) : 于省吾, 《雙劍謬易經新證》; 聞一多, 《周易義證類纂》; 白承周, 《周易疏校記》; 高明, 《連山歸藏考》·《易圖書學淵源》; 王明, 《周易參同契考證》; 白壽彝, 《周易本義考》; 郭沫若, 《周易的構成時代》; 顧頡剛, 《周易卦爻辭中的故事》; 譚戒甫, 《周易卦爻新論》; 李鏡池, 《易傳探源》·《周易筮辭考》; 胡朴安, 《周易古史觀》; 屈萬里, 《周易爻辭中之習俗》; 徐世大, 《周易闡微》; 王忠林, 《周易正義引書考》

4. 創新派(서구 사상을 역학에 끌어들이어 새로운 역학 이론을 생성한 연구들): 朱謙之, 《周易哲學》 - 서양의 宇宙論·人生論·知識論등의 이론으로 易理를 해석함; 沈仲壽, 《the symbols of the Chinese Logic of Changes》 - 易經 原文을 번역했음·《易卦與科學》; 丁超五, 《科學的易》 등.

二·徐芹庭, 《易經源流：中國易經學史》: 宋元明清代易學史를 다루었고 여기에 자신의 견해가 반영된 〈易學別傳〉을 덧붙였다. 〈台灣易學著作與易學家〉(《周易研究》, 1993年第二期)

三·朱伯崑, 《周易哲學史》: 易經·易傳·易學之分. 易學: 先秦에서 청말까지 주요 학자들의 역학이론을 수록.

四·廖名春·康學偉·梁韋弦, 《周易研究史》: 1989년까지의 역학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했음. 先秦易學·兩漢易學·魏晉隋唐易學·宋元易學·明清易學·現代易學 等. 〈現代易學〉: 그중에서 현대역학은 民國初年~一九八〇年代의 義理易學·象數易學·考據易學·國外流傳與影響으로 세분하여 정리하였다.

五・楊慶中,《二十世紀中國易學史》: 이 책은 상편과 하편으로 나누어 각각 다음과 같은 체제로 구성하였다. 上篇: 經學家的易學研究・古史辨派與唯物史觀派的易學研究・易學研的新探索; 下篇: 五六十年代的易學研究・八十年代以來《周易》經傳的注釋與研究・易學史研究・《周易》與出土文獻・《周易》思想的現代詮釋・1949年以來台灣地區的易學研究。

六・潘雨廷,《易學史叢論》: 自序・三古的易學・上古三代易簡論・西周與東周的易學・卦爻辭的原始意義・先秦~東漢易論・魏晉南北朝的三玄易・宋明清易學・附錄一: 易學史大綱。

七・賴貴三,《台灣易學史》, 臺北: 里仁書局, 2008年: 이 책은 상편에서 역사적 실록을 고찰하여 대만역학 발전의 역사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모두 3단계 7시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부록에는 많은 자료를 첨부하여 참고 가치를 높였다. 하편은 대만 역학자들의 일단을 소개하고 대만 광복 이래 60여 년간의 28명의 대표적인 역학 선진들과 학계전문가들의 교육과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八・賴貴三,《台灣易學人物誌》, 臺北: 里仁書局, 2013年: 이 책은台灣科學委員會專題研究計劃項目的 연구 성과이며《台灣易學史》의 후속 성과이기도 하다. 구성은 回顧臺灣《易》學研究文獻・早期《易》學史料與《易》學人物・臺灣光復以來三代《易》學代表性人物的珠璣精粹 순으로 서술을 하되 ‘學案’식의 서술 체계를 구사하고 있다. 이 책은 역사에 대한 거시적 시야를 견지하고 있으며 역학문헌

정리에서 의의가 크다.

九·廖名春,《周易經傳與易學史新論》·《周易經傳與易學史續論:與出土簡帛傳世文獻的互證》

※ 대체적으로 볼 때, 후세대 학자들이 역학사를 정리할 때 사용했던 현대적 분류법이나 규모는 기본적으로 高明의 〈五十年來之易學〉의 체제가 기본적인 참고서 역학을 한 것으로 보이며, 고명 선생의 이 연구 성과의 기초 위에서 확장·발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楊慶中의 《二十世紀中國易學史》와 賴貴三의 《臺灣易學史》 등 후속 역학사 연구들은 역학자와 역학연구 성과를 수집하는 규모가 전면적이고, 또한 그 중에 신출토된 簡帛문헌의 연구 성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期刊論文】

최근의 연구동향에 관해 논구한 논문들에 한해서 소개한다.

鄧聲國,〈21世紀易經文獻學研究展望〉,《周易研究》2003年第一期。

張紹時,〈1984年以來大陸《周易》思維研究述評〉,《雲夢學刊》第39卷第一期,湖南師範大學文學院。

楊慶中,〈二十世紀中國易學研究的宏觀審視〉,《中國哲學史》1999年第2期。

楊慶中,〈中國易學研究在21世紀〉,《中國哲學史》2001年第4期。

黃沛榮,〈近代出土文物在《易》學研究上的意義〉,《中國文化大學中文

學報》第二十期，2010年4月。

宋錫同，〈建國六十年來大陸易學研究回顧與展望〉，《現代哲學》，2011年第4期。이 논문의 구성은 1949年~1960年代的易學研究・1980年代~2000年的易學研究熱潮・新世紀初的易學研究與展望의 순서로 서술되었다.

曾春海；吳進安，〈導言：東亞易學研究成果之述評專題〉，《哲學與文化》第四十二卷第十二期，2015.12.

鄭吉雄，〈《周易》全球化：回顧與前瞻(一)〉，《周易研究》2018年第1期。

鄭吉雄，〈《周易》全球化：回顧與前瞻(二)〉，《周易研究》2018年第1期。

金春峰，〈《周易》對中國哲學史研究之重要意義—以若干重要問題為例兼論重寫中國哲學史〉，《周易研究》2018年第3期。

歐陽康，〈《周易》與新時代中華文化建設〉，《周易研究》2018年第4期：이 논문은 「國家社科規畫辦重大委托項目—十八大以來黨中央治國理政新理念新思想新戰略的折合學基礎」；教育部社科司2018年「黨的十九大精神研究專題項目」이라는 별주에서 보듯이 현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에 이론적 지지를 보내는 연구이다. 매우 특수한 경우라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石永之，〈中西文化共祝天下大同一對十九大報告關於建構人類命運共同體的文化闡釋〉，《周易研究》2018年第5期：國家社會科學基金項目—「中西比較視域下的天下主義研究」：이 논문도 정부의 시책에 역할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시도된 논문이다.

【易學文獻目錄】

역학 문헌 목록은 사실상 주역학사에서 전통적인 목록학의 관점에
서 통시적으로 역학문헌과 역학자들의 인물들을 망라하고 있는 연구
들이라 참고 가치가 크다.

黃壽祺, 《易學群書平議》七卷・《六庵易話》一卷・《周易要略》一卷等.

張善文, 《歷代易學要籍解題》: 對歷代易說506種作詳解. 前言・凡例
・先秦至兩漢・三國志隋唐・北宋・南宋・元代・明代・清代・當
現代・後記. ‘당대(當代)’ 부분만 약 101종에 달하는 역학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있다.

張善文, 《歷代易家考略》: 先秦・西漢・東漢・三國; 西晉・東晉・南北
朝至隨・唐代・北宋・南宋・元代・明代・清代・近現代・後記.

* 近現代: 王凱運・皮錫瑞・王樹枏・廖平・馬其昶・杭辛齋・尚
秉和・徐昂.

* 後記: 후기에서 저자가 黃壽祺 선생의 수학 과정과 그 스
승들과의 관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후기에의 하면 황
수기 선생은 章太炎 先生の 再傳弟子이며, 吳承仕・尚秉
和・馬振彪・楊樹達・余嘉錫 등의 학자들로부터 수학하였
다. 그 중에서 吳・尚 두 선생의 두터운 사랑을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

林慶彰, 〈《周易》研究著述分類目錄〉, 《周易研究》1991年第3期/第4
期, 1993年第1期/第3期/第4期, 1994年第1期/第2期/第3期
- 林慶彰 선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학자이며, 특히 경학의 목록
학에 대한 연구가 탁월하다.

【學位論文目錄】

1. 張金平,〈中國高校易學博士學位論文題名索引〉(1990~2016),《周易文化研究》第八輯。
2. CNKI(中國知網)檢索系統
3. Airiti Library(華藝線上圖書館檢索系統)

【易學辭典類】

- 1.《中華易學大辭典》,上海古籍編輯部編。
2. 伍華主編,《周易大辭典》,中山大學出版社,1993。
3. 張善文,《周易辭典》,北京: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2005。
4. 呂紹綱主編,《周易辭典》,臺北:漢藝色研,民國90[2001]。
5. 張其成主編,《易學大辭典》,北京:華夏出版社,1992。

【海外易學研究】

- 鄭炳碩,〈近五十年韓國易學發展史之成果及述評〉,《哲學與文化》第四十二卷第二期,2015.12.
- 近藤浩之,〈日本易學研究之成果及述評－日本近五十年易學研究狀況及成果〉,《哲學與文化》第四十二卷第12期,2015.12.
- 林忠軍,〈近六十年來中國大陸易學研究述評〉,《哲學與文化》第四十二卷第十二期,2015.12.

【臺灣地區之易學大儒】

1. 屈萬里：《讀易三種》(聯經)
2. 牟宗三：《周易演講錄》(聯經)·《周易的自然哲學與道德含義》(全集第一冊)。
3. 方東美：〈周易邏輯問題〉，《生生之美》(黎明文化)·《原始儒家與道家哲學：易經部分》·《中國哲學精神及其發展·第三章》等處。
4. 愛新覺羅 毓璽：《毓老師說易經》(上中下)，陳綱筆記(成都：天地，2018)·《毓老師講易經：乾坤繫辭說序》卷一，林世奇筆記(臺北：中華奉元學會，2016)
5. 唐君毅：《中國哲學原論·原道篇二》— 第二十四章·第二十五章是關於易學哲學的內容。
6. 高懷民：《先秦易學史》·《兩漢易學史》·《宋元明易學史》·《大易哲學論》等。
7. 胡自逢：《先秦諸子易說通考》(民國68)·《易學識小》(文史哲出版)
8. 黃沛榮：《易學乾坤》·《周易象象傳義理探微》。
9. 程石泉：《易學新探》·《易學新論》·《易辭新全》等
10. 黃慶萱：《乾坤經傳通釋》(三民)·《周易縱橫談》(東大)
11. 戴璉璋：《易傳之形成及其思想》(文津，1989)
12. 吳怡：《易經繫辭傳解義》(三民書局，民國90)
13. 曾春海：《易經的哲學原理》等
14. 陳鼓應：《周易注譯與研究》(與趙建偉共著)·《易傳與道家思想》·《道家易學建構》。
15. 傅佩榮：《解讀易經》等
16. 鄭吉雄：《易圖象與易詮釋》(2002)·編《周易經傳文獻新全》(台大出

版中心)

17. 南懷瑾·徐芹庭, 《周易今注今譯》(臺灣商務)。
18. 徐志銳: 《周易大傳新注》(臺北: 里仁, 1996/齊魯書社, 1986)
19. 林麗真, 《義理易學鉤玄》(台北: 大安, 2004)
20. 何澤恆: 《焦循研究》(台北: 大安, 2009)
21. 楊自平: 《世變與學術: 明清之際士林易學與殿堂易學》(臺大出版中心, 2012)

이 항목에 소개되는 상당 부분의 학자들은 청말민초清末民初 서세 동점과 신문화 운동의 시기에 중국학문의 역사적 향배에 영향력을 지닌 대가들이다. 대만이나 홍콩의 학자들 또한 이들의 직계 제자이거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물론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1980년대 이른바 ‘개혁개방’ 시대에 학계에 이름을 올린 학자들도 수 록하였다.

1. 馬一浮, 《複姓書院講錄》下冊之〈觀象卮言〉·下冊〈洪範約義·七稽疑〉。
2. 熊十力, 《讀經示要》下卷·《乾坤衍》·《原儒》下篇: 都有關易學哲學的論述。
3. 尚秉和: 《周易尚氏學》·《周易評義》·《周易象數通論》·《周易古筮考》·《周易圖典舉要》等
4. 黃壽祺·張善文: 《周易譯註》·《周易漫談》等
5. 金景芳·呂紹綱: 《周易全解》·《周易通解》·《周易的哲學精神—呂紹綱易學文選》等
6. 朱伯崑: 《易學哲學史》·編《周易通覽》·《易學基礎教程》《易學漫步》

等

7. 高亨：《周易古經今注》·《周易大傳今注》《高亨周易九講》(王大慶整理，中華書局)
8. 李鏡池：《周易探源》·《周易通義》— 最近有出版《李鏡池周易著作全書》(四冊)，(李明建整理，2019)
9. 劉大均·林忠軍：《大易集釋》·《周易經傳白化解》/《歷代易學名著研究》·《明代易學史》(與張沛·張韶宇共著)·《周易源流與現代闡釋》
10. 蕭漢明：《傳山易學研究》·《周易本義導讀》·《易苑漫步》等。
11. 唐明邦：《周易評注》·《周易通雅：唐明邦易學論文選》。
12. 汪學群：《清初易學》·《清代中期易學》
13. 郭彧：《易文獻辨詰》
14. 張其成：《易道主幹》·《象數易學》
15. 鄭萬耕：《易學與哲學》
16. 蘭甲云：《周易卦爻辭研究》(湖南大學，2006)
17. 楊慶中，(《周易經傳研究》(北京：商務，2005)
18. 余敦康，(《漢宋易學解讀》(中華書局，2017)

【易學論文集】

1. 嚴靈峰主編，《無求備周易集成·易學論集(195)/易學匯考(192)》
2. 《易學論叢：附易學書目匯纂》，台北縣：廣文書局，民國60[1971]：
이 책은 章太炎《易論》·沈竹初《惠棟易漢學正誤》·沈延國《京氏易傳證偽》·錢基博《周易通志》·熊十力《易經大義》·道仁甫《易學書目匯纂》을 수록하고 있다. 「書目匯纂」에는 《四庫全書總目》과 《江蘇省立國學圖書館圖書總目錄》，그리고 역대 주요 문헌 속에 수록되

어 있는 역학 문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매우 귀하고 참고 활용
도에서 편리한 책으로 판단된다.

3. 黃壽祺·張善文編, 《易學研究論文集》(全4冊)
3. 邱亮輝等編, 《國際易學研究》, 目前編製第12輯。
4. 張濤主編, 《周易文化研究》(北京: 東方出版社): 이 편집은 2009년
에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周易文化研究》第九集(2017年12月)까
지 발간되었다.
5. 黃沛榮編, 《易學論著選集: 附朱熹周易本義》(民國74[1985]年) - 초
기 역학 대가 12명의 역학연구 논문을 싣고 있다.
6. 劉大鈞主編, 《簡帛考論》(上海古籍, 2007) - 이 자료는 모두 2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으며, 죽간이자 백서 관련 자료인데, 이중 15편이 주역
관련 의제를 다루고 있다.
7. 蔡尚思編, 《十家論易》(上海人民, 2006)
8. 李學勤·朱伯崑等, 《周易二十講》(廖名春選編, 北京: 華夏, 2008)
9. 劉大鈞主編, 《周易研究》- 이 學刊은 1988년 劉大鈞 교수가 발기하여
2001년까지는 계간으로 간행하다가 2002부터 雙月刊으로 발행하고 있다.
2000년에 ‘全國中文核心期刊’과 ‘全國人文社會科學核心期刊’(CSSCI)로 승격되
었다. 2019年第2期(2019.04.)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總發刊號는 모두 第一五四
期이다. 역학학술지로서 규모가 가장 방대하고 역사 또한 가장 오래된 학간
이다.
10. 吳秋文·孫晶主編, 《中國周易》(中國社會科學院, 2011) - 이 학간
은 第一輯만 발행하고는 멈추었다.

※ 소개된 논문집은 모두 각 시대의 역학연구의 논저들을 대표하는
논문들이라 참고 가치가 매우 크다.

【出土文獻研究】

1. 邢文, 《帛書周易研究》(人民出版社, 1997)
2. 鄧球柏, 《帛書周易校釋》(湖南人民, 2002)
3. 張立文, 《周易帛書今注今譯》(臺灣學生書局, 民國80)
4. 張政烺, 《論易叢稿》, 李零等整理(中華書局, 2011)
5. 金春峰, 《周易：經傳梳理與郭店楚簡思想新釋》(北京：中國言實出版社, 2004)
6. 廖名春, 《帛書周易論集》(上海古籍, 2008)
7. 李零, 《中國方術考》(北京：東方出版社, 2001第二板)・《中國方術續考》(2000)・《郭店楚簡校讀記》(人民大學, 2007)・《上博楚簡三篇校讀記》(人民大學, 2007) - 리링李零의 이 성과는 비록 주역관련 자료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연구 방법이나 자료처리에 관한 연구 성과는 참 고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8. 陳仁仁, 《戰國楚竹書周易言究》(武漢大學, 2010)
9. 郭沂, 《郭店竹簡與先秦學術思想》(上海教育, 2001) - 部分內容
10. 丁四新, 《楚竹書與漢帛書周易校注》(上海古籍, 2011)・《周易溯源與早期易學考論》(中國人民大學, 2017)・《玄圃畜艾：丁四新學術論文選集》(中華書局, 2009)
11. 張玉金, 《甲股卜辭語法研究》(廣東高等教育, 2002)
12. 梁韋弦, 《易學考論・上篇》(黑龍江人民, 2009)
13. 晏昌貴, 《簡帛數術與歷史地理論集》(北京：商務, 2010)
14. 于豪亮, 《馬王堆帛書周易釋文校注》(上海古籍, 2013)

※ 대만학자들의 출토문헌에 대한 연구는 작고한 周鳳五 선생이 가

장 대표적일 것이다. 그 문하에서 배출한 적지 않은 제자들이 출토문헌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다만 대륙학자들의 성과에 비해 아직 발전의 여지를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맺는말】

이상에 소개한 대만의 역학영역의 연구 성과들은 온전한 목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역학을 연구하는 초학자들이 참고할 만한 연구 성과들 중에서 참고 가치가 큰 성과들에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들을 통해 좀 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역학 연구의 목록을 도모하는 것은 이후의 과제로 남겨 두게 된 아쉬움이 있다.

대만의 학계에서 작금의 시대는 그 학술연구의 영역이 어떠한지 간에 모두 ‘본토의식’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시대의 대만 학계(아마도 학계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臺灣本土意識’과 ‘中華意識’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후의 대만학계는 바로 이러한 큰 연구조건 속에서 자신이 학문적 지정학을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